

“한국예술 시작점은 전라도... 음악 콘텐츠도 무궁무진”



평창 대관령음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씨.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72·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씨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B B B(바흐, 베토벤, 브람스) 자로’를 테마로 열린 제13회 평창 대관령음악제(7월 12~8월 9일)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성공리에 마무리한 데 이어 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마린스키 극동페스티벌 축하 상호교류(MOU) 협약을 맺었고, 19일 열린 ‘평창 계촌마을 거리축제’에서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을 안숙선 명창과 협연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광주일보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내소동에 위치한 평창 대관령음악제 서울 사무국에서 정 예술감독을 만나 60여년 ‘현(弦)의 인생’과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대담=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음악제의 성과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는 클래식 음악의 기둥이 되는 ‘3B’를 테마로 하면 재미있겠다 싶어 프로그램을 짜게 됐어요. 제 약 보장만 봐도 3분의 1이 ‘B’예요. 음악제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이 ‘이런 주옥같은 곡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며 좋아하더군요. 그동안 연주하지 않았던 곡을 연주해서 너무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챔버 뮤직(실내악)을 하다 보면 완벽한 조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연주를 해보면 다 잘하는데 한 명이 못하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너무 행복한 페스티벌이었어요. 초대할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연주도 잘해주고, (페스티벌이) 매년 자꾸자꾸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너무 기뻐요.

“첼로는 61년 나의 대변자 연주할 때 만큼은 나이 잊어 광주 공연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최근 평창 대관령 음악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마린스키 극동페스티벌 간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교류계획은?

▲블라디보스톡은 적절한 항구에서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클래식 음악제를 선택했어요. 극동의 문화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라 대관령 음악제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이번 상호 교류협약은 서로 얻는 게 많아요. 당장 한국의 평창과 일본 삿포로, 중국(베이징)을 거대한 음악벨트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2~3개 도시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음악 아티스트들을 외국무대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지.

-세계무대 데뷔 5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 20대와 5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사실 첼로를 연주하게 된지는 올해로 61년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너는 첼로 손이다” 그러세요. 그렇게 첼로와 인연이 됐죠. 저한테 첼로는 생각을 표현하는 제 목소리예요. 글 쓰는 사람이 글로 다 표현하듯이 저는 첼로를 통해서 제 목소리 같이 그런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일생동안 1년에 30~40회 공연을 했는데 작년 초까지는 스물 몇 번 정도 했어요. 70대에 연주하는 첼리스트는 손으로 짚을 정도예요. 저는 연주를 하면 피곤하지 않고 더 힘이 나요. 연주를 하고 나면 몸 전체에 피가 순환되며 다 풀려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저는 아직도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연주회를 몇 개 안 해도 적게 연습하지 않아요. (연주회를) 한번을 하더라도 20번을 하는 사람처럼 유지를 하다가 ‘이제 힘들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 하면 딱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은 제시간이에요. 첼로 연습하는 시간!

-평창과 통영은 클래식 음악제를 통해 문화의 도시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최근 광주 일각에서도 클래식음악제를 계기로 도시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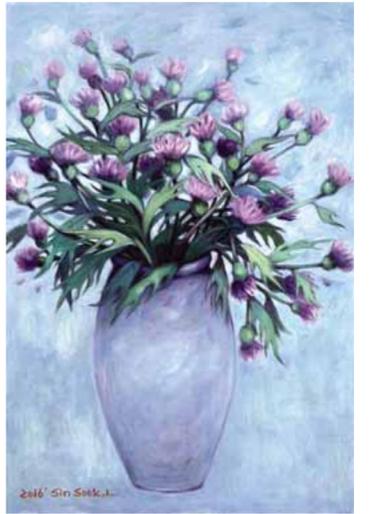
▲우리에게 군항(軍港)으로 잘 알려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보니까 인구가 60여 만명으로 크지 않더군요. 그런데 세계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러시아, 한국 평창, 일본 삿포로, 중국 콘텐츠를 연결해 거기(블라디보스톡)를 동아시아의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요. 문화도시를 만들으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세계적 지도안에 나오게 되죠. 문화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클래식음악제의 의미와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이 따라야 하는데, 이 삼박자가 들어맞아야 해요. 강원도야말로 광주와 비교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걸 국민들이 알지 않아요. 비엔날레 하나는 확실한데 음악이 빠져 있다는 건 2% 부족한 것 같아요. 여동생(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과 제가 어렸을 때 음악선생님이 다 그 고장(광주)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절에 보면 예술적인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예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음악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전라도 출신이에요. 현재 음악, 발레, 기악, 성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예술가들을 광주가 어떻게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그리고 광주에서 공연하실 계획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무대에 오르고 싶고 그동안의 음악인생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오래전에 공연한 기억이 있어요. 물론 불러 주신다면 광주에서 공연하고 싶네요. 하지만 제 나이가 있는 만큼 오래는 못 기다릴 것 같네요. (웃음) /정리=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순전한 믿음으로’

‘자연 예찬’

이신숙전 24일까지 자미갤러리

이신숙 작가가 자미갤러리에서 ‘천양하라 내 영혼아’를 주제로 24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골풍경을 소재로 신 앙심과 자연 아름다움을 담은 서양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명 ‘천양하라 내 영혼아’, ‘담담함으로 나아가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등은 성경에서 따온 말이다.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 노란 유채꽃, 하늘거리는 버드나무를 소재로 삼아 푸르른 생명력을 표현했다.

‘순전한 믿음으로’, ‘알파와 오메가’ 등은 화분을 그린 정물화다.

전시작들은 이 작가의 신앙심과 가능성을 눈여겨 본 정순대 콜렉터의 도움으로 완성했다. 정씨는 지난 2년간 이 작가 작품 30여점을 구매하며 작품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이씨는 광주대 산업디자인과와 조선대 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현대미술의 오늘전’(일본), ‘러시아 몽골 문화성 초청 올림바드로전’(몽골) 등 개인·단체전에 참여하며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2-410-83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5시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추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